

황혼이 질 때면

라이브 퍼포먼스, 30분. 2024.

차연서는 김언희 시인의 「황혼이 질 때면」에서 등장하는 황혼 속의 구멍들을 음악가들의 목소리에 실어 초대한다. '끝장이 난 다음에도 중얼거리는', '말랑말랑한 이빨로 내 머리를 씹는', '나를 삼키는' 존재들은 아이처럼 노인처럼 개구리처럼 찾아오고 웃으며 사라진다. 이 낯선 물가에서 죽은 자와 산 자를 위한 셋노란 영혼의 목욕을 집전하는 3인의 세신사는, 이미 끝장난 끝과 새로운 시작 사이의 검고 누런 경계를 질경대며 거무죽죽한 풍선껌처럼 부풀게 한다.

논바이너리 싱어송라이터인 지국과 영안은 듀엣 무대로 편곡한 'Swallow' (원곡: 영안, 편곡: 영안 및 지국)를 선보이며, 동환스님은 극락강을 건너는 길을 인도해주는 '인로왕보살(引路王菩薩)'을 부르는 짓소리를 실연한다. 세 갈래로 겹쳐지고 갈라지는 목소리들이 이분화된 몸과 장소, 시간들 사이의 경계를 오고 가기를 — 비명도 한숨도 아닌 바람소리로 '헐, 헐, 헐,' 소리를 짓는다. (2024, 차연서)

heol, heol, heol

Live Performance, 30 Mins, 2024.

Cha Yeonså invites the voices of musicians to embody the twilight holes described in poet Kim Eon Hee's "At Dusk" (「황혼이 질 때면」). These entities, who "mumble even after meeting their end," "chew on my head with tender teeth," and "swallow me," appear as children, as the elderly, and as frogs, before vanishing with a smile. The three bath attendants, performing a yellow-tinted spiritual bath for the dead and the living at this unfamiliar waterfront, chew on the black and yellow boundary between an already ended end and a new beginning, inflating it like dingy bubble gum.

Non-binary singer-songwriters June Green and Young_An present a duet version of "Swallow" (original song by Young_An, arranged by Young_An and June Green), while Ven. Donghwan performs the Buddhist chant calling to the Bodhisattva (Inlowangbosal) who leads souls across the river of paradise. The overlapping and diverging voices traverse the boundaries between divided bodies, places, and times — uttering 'heol, heol, heol,' a sound that is neither a scream nor a sigh, but the sound of the wind — from deep inside the hole. (2024, Cha Yeonså)

황혼이 질 때면

차연서

퍼포머: 동환스님, 지국, 영안
기술감독: 이슬엽(음향), 김혜정(조명·공간)

heol, heol, heol

Cha Yeonså

Performed by Ven. Donghwan, June Green, Young_An
Technical Directors: Lee Solyoub (Sound), Kim Hye Jeong (Light · Space)

개같은

똥같은

갈보같은 구멍

천역에 찌들린 구멍, 피로로

씩어가는 구멍, 이미

끝장이 난 구멍

끝장이 난 다음에도 중얼거리는

크르륵거리는 구멍, 풍선껌을

씹는, 말랑말랑한 이빨로

내 머리를 씹는, 움쭉

움쭉 나를

삼키는

구멍

황혼이 질 때면

헐, 헐, 헐,

웃는

구멍

황혼이 질 때면

김언희

(김언희 시집 『GG』, 2020)

At Dusk

Kim Eon Hee

(From "GG", 2020)

I. Reverse

나비무 (Butterfly Movement)

Remix by Yeonså, 2024

Mixing for live set by Lee Solyoub, 2024

Performed by Ven. Donghwan, 2024

II. Swallow

Duet Arrangement and Performance by
June Green & Young_An, 2024

Mixing for live set by Lee Solyoub, 2024

Original song by Young_An, 2023

III. 화의재바라 (Mantra and Movement for making liberating clothes)

Quoted sound from '관욕 Baths(2024)'

the sound installation in the solo show,

Performed by Ven. Donghwan, 2024

IV. 인로왕보살 (Calling Bodhisattva who guide the path after death)

Performed by Ven. Donghwan, 2024

Chorused by June Green & Young_An,

2024

A hunter, a prey
Searching for her next game
She takes her pills in shame
Shame, shame, shame

She will swallow you
She will swallow you
She will swallow you

She crawls down on her knees
Begging please, fill me in
Sink your teeth into my skin
Give me more, more, more

This hole filled with delusion
A violent digestion
Please, swallow me whole

She will swallow (forget) you
She will swallow (forget) you
She will swallow (oh she will swallow
me whole) you
She will swallow (become) you

She feels nothing at all
When she goes high then falls
All is nothing
Nothing is all

Is this pain or numbness
Will she forever be loveless
Is her love an illness

She will swallow me up
She will swallow me up
She will swallow me up
She will swallow me up

스왈로우
지국 & 영안 듀엣 편곡 · 퍼포먼스, 2024
영안 작사 · 작곡, 2023

Swallow
Duet Arrangement and Performance
by June Green & Young_An, 2024
Original Song and Lyrics
by Young_An, 2023

차연서 Cha Yeonsa

‘여느 날 여느 때의 아침을, 죽어서 맞는’ 유충들과 함께 라이브 퍼포먼스 《모스키토라바쥬스》(LES601 선유, 2022)를 발표했다.

동환스님 Ven. Donghwan

7세의 나이에 입산하여 17세에 승려의 길에 들어선 동환스님은 국가유산 영산재(靈山齋) 이수자이며 대한불교조계종 어산종장(魚山宗匠)으로서 어산(魚山) 보존과 계승에 임하고 있다. 국가유산 진관사 수륙재(水陸齋)에 매해 출연하는 한편, 이태원 참사 추모 법회 등에서 동시대적인 개사로 창작 화청(和淸)을 실연하여 전통적인 종교 의례의 역할을 새로이하고 있다.

지국 June Green

모나고 아픈 것들의 아름다움을 주시한다. 음악, 사진, 글, 드랙, 몸짓을 통해 세상이 그어놓은 경계를 초월하는, 또한 어디에도 머무르지 않는 모호한 존재성을 탐구하고 드러낸다. 최근 몇 년간 요동치듯 변화해 온 목소리와 몸, 마음과 시선에 골똘하며 과거의 조각들을 도로 끼집어내어 현재와 화합시키는 작업을 해오고 있다. 제24회 한국 퀴어영화제(아트하우스 모모, 2024)에서 자작곡 라이브 퍼포먼스로 폐막식 무대를 장식했으며, 기획 공연 & 파티 《GENDER THAN EVER》(2024)를 주최하여 자작곡 공연 퍼포먼스, 그리고 자전적 사진과 글을 선보였다.

영안 Young_An

수신하고 발신한다. 노래, 작사작곡, 퍼포먼스, 글, 그림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빈 그릇 혹은 통로의 역할에 가담하고자 한다. 성스러움과 상스러움, 깨끗함과 더러움, 선함과 악함, 유약함과 난폭함 등의 이미지들이 서로 침범하고 부딪히며 내는 날카로운 충돌음을 음악 등을 통해 드러내고자 한다. 영안, 주보람 2인전 《One Before Zero》(스페이스 잉크, 2024)에서 라이브 퍼포먼스 <활란이를 위하여>를 선보이고 공동 기획을 맡았으며, 라이브 퍼포먼스 《모스키토라바쥬스》(2022, Les601 선유)에 작사·작곡 및 퍼포먼스로 참여했다.

Commissioned · Premiered in
Frieze Seoul LIVE 2024
(Curated by Je Yun Moon)

Presented again in
Cha Yeonsa solo exhibition Feed me stones